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13일(화) 총 5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 부서	환경기후정책과	담당자	•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현 ☎440-5978 • 담당자 노금호 ☎440-8592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특별시 인천,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 선정에 한 발짝

- 인천시-부평구, 5년간 국비 240억 지원되는 환경부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 1차 통과 -

- 탄소중립 사회 전환에 맞춘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확산 모델 발굴 -

환경특별시 인천이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한 발짝 다가감에 따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인천광역시는 13일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되는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부평구와 협업해 제안한 사업이 1차 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본격 전환에 맞춰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기후변화 적응 등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위한 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지난 2월 환경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했으며, 이날 1차 평가를 통과한 인천시 등 8개 지자체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1차

평가를 통과한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 발표평가를 통해 이달 말 최종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는 2개 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각각 국비 24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인천시와 부평구는 ‘사람과 도시가 쉼 쉬고, 지구를 살리는 nearly Zero Energy City(nZEC)’ 조성을 목표로 도심의 건물(nZEBuilding), 주차장(nZEParking), 정류장(nZESation), 공원(nZEGreen park), 하천(nZERiver) 대상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자립, 흡수원 확대를 통한 2030년 기준 온실가스 40,573톤을 감축할 수 있는 선도모델 제시를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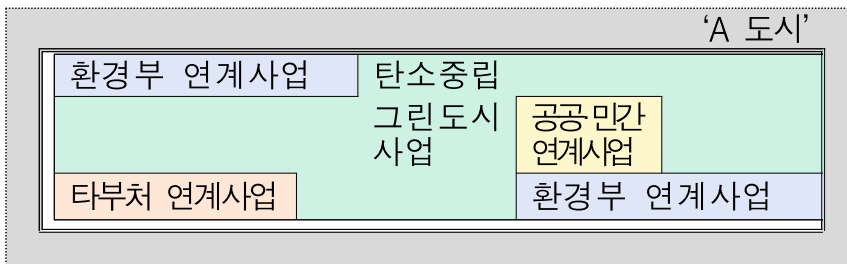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nZEC 모델은 전국 도심지의 탄소중립을 위한 표준이 될 것이며, 우리 시는 2050 탄소중립 전략 용역을 수립해 중·장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고 보다 체계적인 이행성과 관리를 통해 2050 탄소중립(Net-Zero) 실현에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그 동안 인천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공공부문 목표관리제에서 2020년 지자체분야 전국 1위, 10년 연속 온실가스 감축목표 우수 달성기관 등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참고〉 환경부 공모사업개요

□ (개념) 환경기술·인프라를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충, 순환경제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계획·구현하는 도시

*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 '탄소중립도시'란,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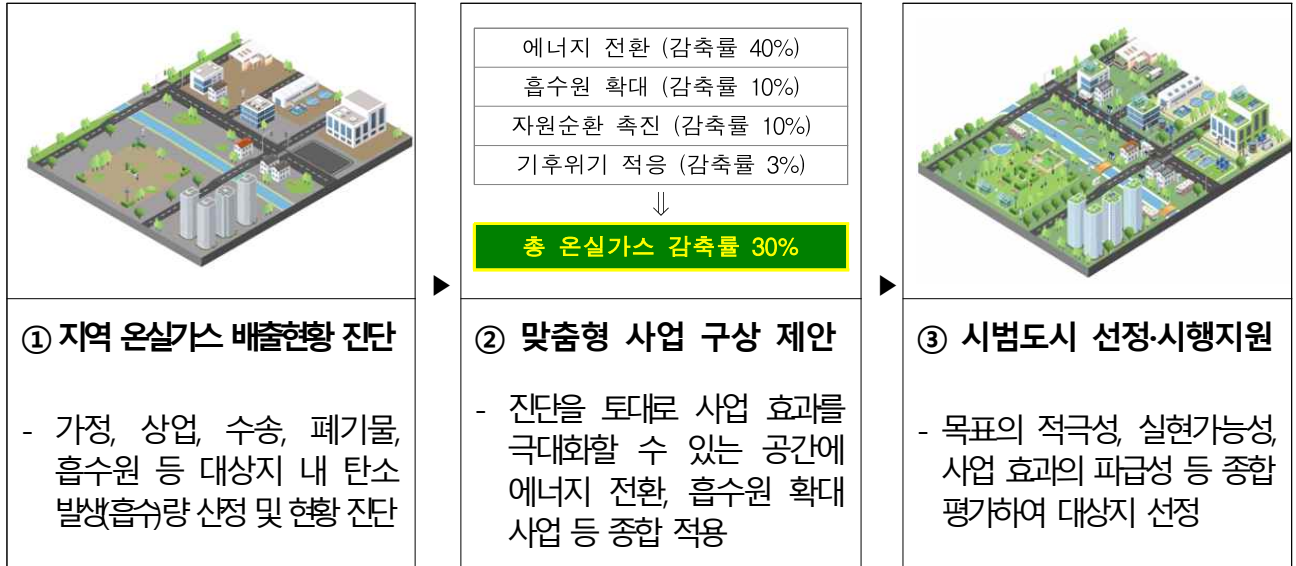
(예시) 연계가능한 탄소중립 (환경부, 타부처 등) 사업을 'A 도시'의 일정 지역에 연계 적용하여 시너지 창출

□ (내용) 지역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을 토대로 탄소중립 주요 환경분야 사업들을 여건에 맞게 패키지화·집적화

구 분		주요 예시	예산 지원
본 (핵심) 사업	H/W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전환) 화석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 위한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열·하수열·바이오가스, BIPV, 전기·수소차기반 확대 등 ○ (흡수원 확대)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습지 등 흡수원, 도심 훼손지 생태복원, 그린인프라 등 ○ (자원순환 촉진) 물·폐기물 등 자원순환 확대 및 재이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폐기물 수거·선별·모니터링 시스템, 물재이용 시설 등 ○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적응 및 기상재해 대응을 위한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형 다기능 그늘막, 옥상벽면녹화, 스마트 재해관리 등 	○
	S/W 사업 <small>*총사업비 10%이내</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정책) 탄소중립 촉진 및 지원을 위해 도시, 대상지 및 사업 맞춤형 정책 도입·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주민협약, 생태교통, 에코마일리지 등 ○ (참여형 사회구조) 시민참여 리빙랩 등을 통해 생활행태를 탄소중립형으로 개선하고 시민의 양방향 소통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리빙랩, 탄소중립 생활패턴 강화 등 	
연계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 이행기반) 지자체 자체사업, 중앙부처 지원사업(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산림청 등), 공공민간사업(자본투자, ESG 공헌 등) 등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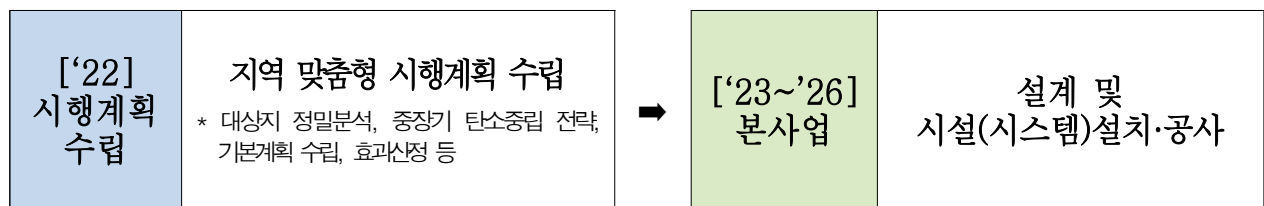
□ (공모) 지자체가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을 토대로 제안한 탄소중립 사업 구상(안)을 평가하여 대상지 선정

[지자체 탄소중립 이행사업(안) 작성 흐름도(예시)]



□ (지원방식) 지자체 제안서를 토대로 ^[1년]맞춤형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 ^[4년]본사업 시행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체계적 사업 추진

- (시행계획)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전문가 자문단(컨설팅) 지원(16(9.6)억원/개소)(‘22.5월~12월)



* (시행계획) 사업의 전문성, 실현가능성 보안을 위해 환경·도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 전문가 자문단**(Master Planner) 운영하여 지자체별 시행계획 수립·설계 전과정 밀착 컨설팅

- (본사업) 2개소, 개소당 4년간 240억원 지원(총사업비 400억원(보조율 60%))

[개소당 연차별 사업비(안)]

구분	합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총사업비(국고)	400(240)억원	16(9.6)억원	80(48)억원	120(72)억원	104(62.4)억원	40(24)억원
추진 비율	100%	4% (시행계획 수립)	20% (설계·공사착수)	30% (공사진행)	26% (공사진행)	10% (공사완료)